

## 8강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교회 (고후 6:3~7:1)

(읽을 말씀 6:3~10)

### 오늘의 포인트

- 하나님의 복음의 역설을 이해하기
  - 고난이 사라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곳에서 복음의 능력은 놀랍게 나타난다.
- 거룩한 교회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거룩한 교회를 이룬다는 의미를 이해하기

### 바울 사도의 자천(6:3~10)

- 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나열하는가?
  - 여전히 거짓 교사들(거짓 사도들)에게 이끌려서 바울 사도에게 의문과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권면한다.
- 고린도교인들이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추천장이라고 말했던(3:3)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참 일꾼으로 자천한다(6:3~4a).  
(6:3~4a)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**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**
  - 사도 바울이 자천하는 근거=고린도 사람들 앞에 드러난 자신의 삶
  - 기독교 신앙은 삶과 유리된 교리체계나 신앙이 아니다.

### 삶과 신앙, 삶과 교리는 분리되지 않는다.

- 교리는 기독교의 영혼이다.
  - 신앙은 믿음의 내용 즉 교리에 대한 지식을 전제한다.
  - 그러나 참된 신앙은 언제나 교리를 삶으로 드러낸다.

### 복음 사역자의 태도(6:3)

(6:3)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바울의 딜레마: 목사가 싫으면 신앙 생활을 하기 어렵다.

바울의 열망: 자신이 아니라, 자신을 통해 복음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직분이 드러나는 것

### ‘많이 견디는 것’의 목록들

(6:4)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**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**

- ‘많이 견디는 것(great endurance)’ = 복음을 위해서 견뎌야 했던 삶의 목록들

### 많은 어려움들(6:4b~5)

(6:4b~5)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**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간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**

- 모두 복수(plural) 형태로 사용됨: 환난들, 궁핍들, 고난들, 매맞음들, 간힘들, 난동들, 수고로움들, 자지 못함들, 먹지 못함들..
  - 일반적 어려움: 환난, 궁핍, 고난
  - 구체적이고 물리적 박해: 매 맞음, 간힘, 난동

- 복음을 위한 수고에 따르는 자발적 헌신의 증거들: 수고로움, 자지 못함, 먹지 못함
- 이 모든 것은 '오직 복음을 위해서, 복음 때문에' 일어난 일들이다!

### 은혜의 목록들(6:6~7a)

(6:6~7a)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

- 모두 단수(singular) 형태로 사용됨: 깨끗함, 지식, 오래 참음, 자비함, 성령의 감화, 거짓이 없는 사랑, 진리의 말씀, 하나님의 능력
-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붙들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있다.

### 변하는 상황들(7b~8a): '말미암으며'(with, through)

(6:7b~8)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

- 변하는 상황들에 대한 묘사
- 이 목록은 모두 헬라어 전치사 'dia'('말미암아' 또는 '통하여')로 시작한다.
  - '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' = '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'(표준새 번역)
  - 영광, 욕됨, 악한 이름, 아름다운 이름(을 통하여, 으로 말미암아)
-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를 통하여 영광과 욕됨, 그리고 악한 이름(나쁜 평판)과 아름다운 이름(좋은 평판)이 수시로 변하는 것을 모두 경험하였다.
- 바울 사도는 이런 것에 의하여 일희일비하지 않고, 변함 없는 의의 무기를 두 손에 잡고 서서 여기까지 왔다.
-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,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생각하고 왔다.

###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능력(6:8b~10)

(6:8b~10)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

-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목록: '같으나'
  -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
  -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
  -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
  -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
  -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
  -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
  -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
- '같으나'로 표현되는 외면적 판단(고린도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하는)을 넘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실재를 보라!
  - 바울 사도는 고린도사람들의 판단을 부인하지 않는다.

- 그러나 동시에 복음의 역설--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능력의 실재를 말한다.

**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놀랍게 나타나는 것은 고난이 없고 기적이 일어날 때가 아니라 역경을 믿음으로 견딜 때이다.**

- 바울 사도는 “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되었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”고 간증하지 않는다.
- “너희가 보는 바, 내 삶의 고난들은 그대로 존재한다.”
-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이 제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, 고난 속에서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데서 가장 놀랍게 나타난다.

### **나를 용납하라(6:11~13)**

(6:11~13)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

- 여전히 바울 사도를 용납하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사도의 마음
  - “내 마음에서 너희가 배척을 당하거나 거절을 당한 것이 아니라, 너희의 좁은 마음이 나를 배척하고 거절한 것이다.”
- 사도가 보여주는 아버지의 심정
  - “자식에게 하듯이 내가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서 나를 용납하라.”
- 고린도후서는 아직도 사도를 배척하고 있는 고린도교회의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이다.

### **거룩한 교회가 되라(6:14~7:1)**

- 사도는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고 있는가? (6:14)

(6:14)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

**구별과 분리(6:14b~16a): 의와 불법 / 빛과 어둠 / 그리스도와 벨리알 / 믿는자와 믿지 않는 자 /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**

(6:14b~16a)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

- 5개의 구별과 분리의 개념--양립할 수 없는 두 개념들의 조합
  - 의와 불법
  - 빛과 어둠
  - 그리스도와 벨리알
  - 믿는자와 믿지 않는자
  -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
- 중요한 질문—해석의 열쇠: '믿지 않는 자'(14절)는 누구를 가리키는가?

- ‘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’는 말씀은 불신자와의 결혼, 불신자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말씀인가?
  - 만일 불신자와의 결혼이나 동업을 금하는 말씀이라면, 바울 사도는 여기서 화제를 전환하고 있는 셈이다.
- ‘믿지 않는 자’가 누구를 가리키는가가 이 구절을 해석하는 열쇠다.
  - ‘믿지 않는 자’는 여전히 바울 사도 자신을 배척하고 거짓 사도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.
  - 바울 사도는 이들이 자신을 용납하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이미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고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, ‘너희는 그들과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한다.
  - ‘하나님과 화목하라’는 메시지와(5:20) ‘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’는 권면(고후 6:2)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결국 불신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.
  - 그렇다면 그들은 더 이상 믿는 자도 아니며 형제도 아니다.
  - 믿는 자들은 절대로 이들 ‘믿지 않는 자’와 함께 멍에를 멜 수 없다. 이들과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없다!
  - (6:16)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**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**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
-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언제나 교회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교회 안으로부터 일어난다.
  - 그것은 거짓 가르침 즉 다른 복음의 문제다(갈 1:6~9).
  - 위험! “우리는 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 모두가 다 하나다!”
  - 깊고도 신중한 영적 분별력을 사용하라.

### 구약 인용(6:16b~18)

- 바울 사도의 강조점: 교회의 순결과 거룩
  - 바울 사도가 이어서 인용하는 구약성경의 구절들은(6:16~18)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강조하는 말씀들이다.
  - 구약 인용은 ‘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’(6:16a)는 말을 확증해준다.

### 레위기 26:11~12; 에스겔 37:27

(6:16b)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

-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**출애굽** 직후에 주어진 약속
- 참으로 하나님은 새언약의 백성이 된 고린도교인들 안에 계시고 저희 하나님이 되시며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.

### 에스겔 20:34; 이사야 43:6; 52:11

(6:17~18)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

- “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”

-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바, 부정한 것과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정결 규례와 관련된 말씀이다.
- “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.”
  - 앞의 인용이 출애굽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 인용은 구약의 또 한 번의 중요한 구원 사건인 **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**과 관련된 약속이다.

## 구약을 인용하는 바울 사도의 목적

(6:14a) “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.”

(6:17a) “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”

-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라.

## 명령과 권면

### 신자와 불신자는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없다(6:14a).

(6:14a) “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.”

- 이 명령의 원(原) 의미
  - 불신자와의 결혼이나 동업을 금하는 명령으로 의도된 말씀이 아니다.
  - 넓은 의미에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하는 명령으로 적용할 수 있다. 가정은 교회의 단위이기 때문이다.
  - 불신자와의 동업 자체를 금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. 직장은 교회의 단위로 볼 수 없다.
- ‘멍에를 함께 멘다’는 의미
  - 정체성을 결정하는 연합이나 그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.
  - 이것은 판단과 분별력을 요구한다.
  -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룹에 들어가거나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가?
- ‘믿지 않는 자’
  - 바울 사도를 대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‘믿지 않는 자’들이다.
  - 믿는 자들은 이들과 함께 교회, 곧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갈 수 없다.
  -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흐드는 문제다.
  - ‘믿는 자들’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.

###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(7:1).

(7:1)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

- 바울 사도의 낯선 표현: “사랑하는 자들아”
  - 바울 사도는 애타는 심정으로 여전히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 권면을 한다.
- 명령이 아니라 권유다.
  - ‘우리는... 깨끗하게 하자.’

- 바울 사도는 자신과 고린도교회가 가지는 연대성을 표현한다. 바울 자신도 교회의 한 지체다.
- 바울 사도의 관심
  - 고린도 교회가 깨끗한 교회, 순결한 교회,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
  - 이것은 교리와 삶의 영역에서 함께 일어나야 한다.

-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근거와 동기
1.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들이다.
    - 구약의 인용은(6:16~18) 바로 그 약속들의 내용이다.
    -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.
    - 이 약속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해야 한다.
    - 이 약속과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삶의 순종에 가장 중요한 동기다.
  2.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.
    -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바울 사도가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다.
    - 우리가 다 그 분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거룩한 감각이다.
    - 이 감각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만들어주는 동기이다.

## 오늘의 적용

-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약함과 고난을 견디는 곳에서 놀랍게 드러난다.
  - 예수님과 물질 축복, 예수님과 사역의 성공, 예수님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지 못한 어떤 것을 함께 얻어야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, 예수님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다.
- 교회의 거룩함은 세상을 향한 최고의 복음 증거다. 거룩한 교회를 이루라.
  - 탐욕은 곧 우상숭배이고(골 3:5)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다.
  - 교회의 거룩함은 신자들이 세상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 것을 요구한다.